

레시피는 오감 예술, 나만의 아이디어로 특허권에 도전하자

특허권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부동산처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글 | 박상호(특허법인 변리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레시피

TV만 켜면 먹는 방송, 요리 방송이 대세이다. 분명 이런 현상은 시대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먹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는 증거일 것이다. 남자 셰프가 연예인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유행을 선도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시골에서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했다. 또한 남자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 남자가 요리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던 유교 사상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요리하는 남자가 최고의 신랑감이 되었고, 부와 명예를 얻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요리에 대한 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특허권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음식에도 특허권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음식과 관련된 특허권이 매년 3000여 건이 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특허권에 관심이 많다는 것과, 함부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지적재산권을 함부로 쓴다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이 음식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영화나 예술, 특히 소설이나 출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



한 분쟁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음식에 대한 특허권이 뉴스로 뜨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만큼 특허권 침해를 입었다는 확실한 물증을 찾기가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음식 특허권이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노력의 결과물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을 이르는 말이다. 지적재산권이란 부동산처럼 특허권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빌려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특허권을 재산권이라 하는 이유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레시피가 있다면 특허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이디어와 레시피를 타인들이 훔내 낼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의 레시피는 대개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어떤 재료를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 맛이 천지차이다. 그러다 보니 레시피로 특허권을 받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허는 기술상 전혀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대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두 가지 재료를 넣거나 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100만 원 이상 든다. 그러므로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우리보다 식문화가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도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에서는 관대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셰프들이 새로운 음

식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요리 방법을 모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식 특허권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것은 일종의 마케팅 차원인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승하고,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레시피를 창조적 예술이라고 말하는 셰프들이 많다. 모방은 새로운 창조의 방법이고, 결국에 가서는 셰프들의 독창적인 차별화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특허권으로 돈이 되든 되지 않든 떠나서 자신이 최초 개발자라는 이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은 오감으로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것이 특허권 하나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크게는 레시피와 제조 과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등 여러 종류의 특허권이 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상표 등록이다.

특허 출원을 했지만 특허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허 출원만 한 것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레시피의 특허 등록은 기존에 있던 음식과 얼마나 차별화되는지가 관건으로 재료, 양념 비율, 조리 과정 중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된장찌개에 국수를 넣는다고 해서 특허 출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된장찌개가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된장찌개여야만 한다. 자신만의 고유한 맛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로 특허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④

